

소비절제문화

BND(Buy Nothing Day)

BND라고 들어보셨나요?

“아무것도 사지 않는 날(Buy Nothing Day: BND)”은 1992년 캐나다에서 테드 터너가 시작한 소비절제운동으로 전세계가 함께 동참하는 캠페인입니다. 우리의 지나친 소비가 지구를 파괴하는 것이며 다음 세대들이 사용할 권리를 빼앗는 행위가 될 수 있음 깨닫게 하고자, 매년 11월 26일을 “아무 것도 사지 않는 날”로 지정하고 소비와 환경에 대해 함께 생각해 보기를 호소하고 있습니다. 우리의 끊임없는 소비는 지구환경을 위태롭게 하고 있습니다. 물건을 생산하기 위해 물, 석유, 에너지와 같은 천연자원이 사용되고, 상품을 만들고 운반하는 과정에서 공해와 폐수 같은 오염원이 생깁니다. 그렇게 만들어진 상품마저도 유행과 신상품에 밀려 쓰레기통에 버려지고 있습니다. 버려진 쓰레기 중 자연적으로 분해되기까지 수십 년에서 수백 년 이상을 필요로 하는 쓰레기가 증가하고 있기 때문에 버리는 쓰레기의 양을 줄이지 않는다면 우리의 지구는 결국 한계에 다다르고 말 것입니다.

우리나라의 BND 운동과 소비절제문화

우리나라에서는 2002년부터 녹색연합이 중심이 되어 BND 운동이 시작되었습니다. 우리는 단 하루도 아무것도 사지 않고는 못 견딜까요? 우리나라는 급속한 경제성장과정을 거치면서 물질만능주의 또한 빠르게 사람들 사이에서 자리잡았습니다. 이야기할 때도 얼마나 잘 사는지가 화두가 되어버렸습니다. 학생, 직장인, 주부... 너나 없이 집에 뭘 가지고 있느냐, 뭘 샀느냐가 어느새 그 사람을 생각하는 하나의 기준이 되고 있습니다. 물질만능주의의 사고방식은 소비를 더욱 부추깁니다. 좀더 비싼 것, 최신형·최고급 물건을 가지고 있느냐로 곧 그 사람을 평가하기까지 합니다. 11월 26일, BND는 비록 작은 운동이지만 작은 실천이 우리 사회에 소비절제문화가 자리잡는 기초가 됩니다. 단 하루 동안 아무것도 사지 않고, 우리의 소비생활과 환경에 대해 생각해볼 시간을 가져보는 것은 어떨까요... 우리가 지나치게 구매하는 대표적인 사례들을 다음에 소개합니다.

우리의 소비행태

최신 휴대폰

당신은 얼마나 자주 휴대폰을 바꾸나요? 2004년 정보통신부의 조사에 따르면 우리나라 휴대폰 이용자들은 평균 1년6개월에 한번씩 휴대폰을 바꾼다고 합니다. 이 주기는 갈수록 짧아지고 있으며 전체 이동통신 사용자 4000만 명 중 1200만~1300만 명이 해마다 휴대폰을 교체한다고 하는군요. 게다가 우리의 통신비 지출이 미국과 영국의 두 배라고 합니다. 물론 최신 휴대폰이 기능도 다양하고 보기에 좋지만 이로 인해 버려지는 휴대폰이 여러분의 건강과 여러분이 살고 있는 지구의 건강에 해롭다는 것을 잊지 마세요.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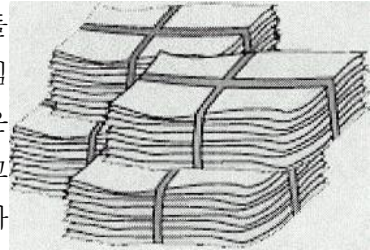
명품중후군

요즘에는 화려하고 멋있게 보이는 광고가 많아 보고 있다 보면 나도 모르게 사고 싶어지는 것들이 참 많지요. 신세대의 58.8%가 외제 수입품 브랜드를 선호하는 경향이 있다고 하고 명품으로 머리부터 발끝까지 장식하고 다니는 '명품족'까지 등장하였습니다. 우리는 그 사람이 가지고 있는 것으로 그 사람의 사회적 지위를 쉽게 평하기도 합니다. 명품을 가지고 있는 사람이 곧 품격있는, 부러움을 받아야 할 사람이라는 인식이 어느 새 사회 전반으로 확산되었습니다. 명품은 그 브랜드 가치 명목으로 동일한 품질의 다른 제품보다 수십 배 이상 비싼 경우도 많습니다. 더구나 명품을 선호하다 보면 명품이 아닌 다른 물건이 여전히 쓸모가 있음에도 쉽게 버리게 되는 경우도 보게 됩니다. 우리에게 가장 필요한 명품은 다른 물건들 보다 명품 지구가 아닐까요?



A4용지는 거저 생기나요

습관적으로 프린터 버튼을 누르시지는 않나요? 출력한 것들 사이에 한 두 줄만 출력된 종이도 많지 않나요? 2000년 말 임업연구원의 통계에 따르면 우리나라 국민 1인당 종이소비량은 153kg으로 이를 위해서는 30년생 원목 2.6그루가 필요하다고 합니다. 우리나라 목재자급율은 6%에 지나지 않으므로 우리가 쓰는 종이를 위해서는 열대밀림의 많은 나무들을 베어야 한다는 말이 됩니다. 결국 우리의 종이 낭비 습관이 '지구의 허파' 열대밀림을 파괴하는 셈입니다. 우리나라 모든 사람이 하루 동안 종이 한 장을 덜 쓴다면 우리는 단 하루에 4,500그루 (A4용지 1만 장=원목 한 그루, 4천5백만 명=4천5백 그루)의 나무를 살릴 수 있습니다. 우리가 쓰지 않는 만큼 생명이 살아납니다. 그렇게 우리가 지킨 나무는 우리의 자녀와 다음세대를 지켜줄 것입니다.



모피가 좋아

모피코트 한 벌을 만들려면 얼마나 많은 동물이 필요한지 아시나요? 친칠라는 1백 마리, 푸른 여우 11마리, 밍크는 크기에 따라 45~200 마리가 필요합니다. 모피를 만들기 위해 매년 4백만 마리의 야생동물이 도살됩니다. 지구온난화로 겨울에도 예전보다 추위가 한결 약해졌지만, 모피코트는 부의 상징으로 여전히 선호되고 있습니다. 지금 이 시간에도 세계 곳곳에서는 야생동물들은 밀렵꾼들의 총구를 피해 달아나고 있고 미처 피하지 못한 동물들은 안타깝게 잡혀 죽고 있습니다. 여우와 반달곰, 늑대와 호랑이는 이제 동물원에서나 볼 수 있는 동물들이 되어 가고 있습니다.

바람직한 소비 습관

- 충동구매를 하지 않습니다.

나에게 꼭 필요한 물건만을 사도록 노력합니다. 광고에 현혹되지 마세요. 광고를 보고 즉흥적으로 사는 것은 충동구매로 이어진답니다.

- 사은품과 경품에 흔들리면 안 돼요.

싸니까, 덤으로 주니까 사다 보면 일년 내내 쓰지 않을 물건도 사고 있는 자신을 발견하게 될 거예요.

- 홈쇼핑에 중독되는 것을 조심하세요.

먼저 자신이 홈쇼핑을 통해 얼마나 구매하는지 꼼꼼이 생각해보세요. 중독 증세가 있다고 생각되면, 우선 TV를 끄고 운동 같은 취미생활로 관심을 돌려보세요.

- 카드보다는 현금을 사용하세요.

카드로 결제하다 보면 자신의 통장 잔액을 생각하지 못하게 되는 경우가 많아요.

- 물건을 살 때마다 환경을 생각하세요.

과대 포장된 것은 되도록 사지 맙시다. 포장이 고스란히 쓰레기가 돼요. 또, 지역에서 생산되어 환경에 부담을 적게 주는 물건을 골라 보세요. 먼 데에서 운반된 것들은 수송과정에서 연료소비가 심할 뿐 아니라 농산물인 경우에는 신선도를 유지하기도 어렵겠지요. 물건을 사기 전에 환경마크도 확인하세요. 이왕이면 환경친화적인 물건을 사는 게 좋겠지요.

- 재활용을 생활화 하세요.

물건을 사기 전에, 지금 갖고 있는 물건을 수선하거나 재활용하면 되지 않을까 꼼꼼히 따져 보고, 불필요한 물건은 사지 않도록 합시다. 오랫동안 정성을 들여 간직하고 사용하면 추억이 깃든 소중한 물건이 될 거예요.

- 일회용품의 사용을 최소한으로 줄입니다.

장바구니를 사용하고, 제품도 일회용품은 되도록 구매하지 않도록 노력해야 합니다. 뿐만 아니라 일회용품 대신 재사용품을 구매하면 여러분의 환경을 위한 소비효과는 두 배가 되겠지요.

- 아나바다 운동 아시지요?

아껴 쓰고 나눠 쓰고 바꿔 쓰고 다시 쓰는 운동이지요. 벼룩시장이나 중고품 가게, 헌책방 등 우리 주변에는 아나바다 운동을 실천할 곳이 생각보다 많이 있습니다. 지금이라도 이용해 보는 것은 어떨까요.